

여야 '신영철' 장외 공방 치열

“사퇴할 만큼 중요 안해” “부적절... 사퇴를”

한미 FTA 비준·추경 편성 싸고 신경전도

에 대해 최소 20조~30조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10조~15조원 이상의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돈을 넣겠다 하는 거 없이 30조다, 30조+알파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책임 없는 자세”라며 슈퍼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한국조세연구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재정이 버틸 수 있는 추경 규모를 10조원 내지 15조원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즉각적 대응은 피하면서도 대규모 추경 분위기를 띄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문제가 규모 논쟁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문제”라며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국가 재정을 부담하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대규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가 방학을 맞은 3월 중에도 여야 간 뜨거운 입설 대결은 여전하다. 쟁점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국회를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신영철 대법관 재판 외압 논란, 대규모 추경 편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국회 밖 장외 공방이 열거를 더해가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논란=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신 대법관의 진퇴 논란과 관련, “신 대법관에 대한 소위 진보진영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인당수 심정형’을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재판 업무를 게

을리하는 분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압력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이메일 자체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한 부적절한 행동이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신 대법관 스스로 빨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적절히 처신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비준=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재협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FTA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 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해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다는 이 정권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성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속도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추가협상, 보완협상, 부속서 채택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해놓고 재협상을 고려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한나라당은 추경 규모



일자리 창출 희망기부금 전달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일자리 창출 희망기부금 협약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로 모은 기부금을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도부 정동영 출마 '부정적'

최고위원회의 “공천권 심사위서 결정 사항”

민주당 지도부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재선거 출마에 대해 최근 부정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세균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한 첫 의견수렴을 했다. 하지만 상당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부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 전 장관 문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는데 대부분 출마를 반대했다”며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공천을

주변 안된다’는 기류가 주류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당과 정 전 장관 모두를 위해 이번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위는 정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는 대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당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최고위의 전략공천권도 감안해 결정하자는 선에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의 이런 결론은 정 전 장관이 출마를 최종 결심할 경우 당이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사인데 출마를 결심한다면 공천을 안줄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정 전 장관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수도권이 당 입장에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쪽에 나간다고 하게 되면 더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측은 당 지도부의 의견 교환에 대해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세성에 맞지 않는 등 특별한 배제할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지 누구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세가 아니다”며 “결국 주류측이 정당을 사유화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감을 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영철 대법관 조사 마무리

조사단 내일결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신 대법관을 상대로 모든 조사를 마쳤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3시부터 6시까지 모두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사의 표명이 압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날 다시 조사에 응한 뒤 취재진을 피해 퇴근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이날도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민사지법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이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했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험심판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험재정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물었다.

신 대법관은 “법대로 하라고 했을 뿐, 재판에 부담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 평소 다른 업무에도 이메일을 잘 활용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1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관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12일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의원들에 해의 가지말라 할뻔 언제고...

국회의장, 1천달러씩 ‘거마비’

국회의원들에게 외유 자제요청을 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1인당 1천달러(한화 155만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0일 “개인 일정이 아닌 공적인 업무로 해외에 나가는 의원들에게 개인 이후 첫 해외출장일 경우 1천달러씩 주는 것으로 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던 일로, 의원들이 의장에 인사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보내기도 어려운 일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는 예비비(매년 13억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해외 출장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관급에 준하는 항공비·숙박비·교통비 일체를 지급하고 여기에다가 국회법 내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대한 규정’에 근거해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경비 지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3월 휴회 기간 국회 국제국에 신고하고 해외 일정에 나선 의원은 모두 79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국을 거치지 않고 상임위 등에서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아 출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사청문 대상에 인권위원장 포함”

김재균의원 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직 축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에 인권위원장을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입법·사법부로부터 독립돼 있는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도 인권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 정동준 ‘사실상 무죄’

‘뉴타운’ 결심공판 구형 안해

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유세 발언이 나온 경우 등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고 10분 만에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합격을 앞서간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였습니다.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적중문제풀이 4주 완성 정형무서사원활약공정호진호지방술 (영어)10가능직

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 (현제에약집수중)

3월16일(주)야박모집 (현재에약집수중)

www.mdgosi.co.kr 222-4560

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례/남·여순경공채

경 찰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 6개월과정 | 1년과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화 수강료 25% D/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완성 6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화 수강료 50% D/C |

순경공채

| | |
|---------------|----------|
| 남-1차: 966명 | 2차: 214명 |
| 여-1차: 40명 | 2차: 47명 |
| 101단-1차: 120명 | 2차: 120명 |

특채

- 전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www.gmega.co.kr 226-5050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3. 강의요일 및 시간

4. 교육기간: 2009년 3월 9일 ~ 6월 28일

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달리 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6. 원서교부및등록기간

7. 등록방법(수강료:150,000원)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정명의),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파견, 각 기업

체. 회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9. 담임교수: 한 상 태

10. 수강료: 150,000원

11. 문의처: 광주대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 (062)227-9600
FAX: (062)227-9500

마사회 광주지점 시간제 경마직 채용

● 근무일: 금요일 1일 하루 근무

● 급 여: 2개월 수습기간 이후 52,000원(식대, 교통비 포함)

● 복 지: 경조사비 지급, 1년 2회 상품권 지급

● 채용대상: 남성 00명, 여성 00명

● 근무시간: 오전 10:00~오후 6:30

※ 이력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남성접수시: rsweon@yahoo.co.kr
▶ 여성접수시: lbs1713@hanmail.net